

## 김연아 '꿈의 200점' 도전

### 점프 감각 최고조...오늘 프리 연기 '역대 최고점' 우승 자신

#### 밴쿠버 4대륙 피겨선수권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는 '피겨퀸' 김연아(19·군포 수리고)에게 제2의 홀그라운드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다'에 가깝다.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72.24점)으로 선두에 오른 김연아는 7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캐나다 밴쿠버 피시픽 콜리시움 실내빙상장에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통해 이번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2위에 오른 조애니 로세트(캐나다·66.90점)와 점수 차는 5.34점. 쇼트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김연아의 놀라운 집중력과 컨디션만 본다면 4대륙 대회 첫 우승은 '때는 당상'이라는 평가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비록 6위로 밀렸지만 두 차례 트리플 악셀을 내세운 '동감내기' 아사다 마오(일본)가 심기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김연아는 지난해 12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번의 점프 실수로 아사다에게 금메달을 내줬던 안타까운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이 때문에 김연아로서는 쇼트프로그램에 나서기 직전의 자신감과 침착함으로 프리스케이팅 연기에 도전해야 한다.

김연아는 6일 오전 밴쿠버 버나비8실 내빙 크에서 '금빛 조

울'에 나서 전날 '어텐션' 마크가 붙었던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가다듬고, 전반적인 연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애를 썼다.

아사다 역시 트리플 악셀을 통해 대반전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로세트 역시 개최국의 자존심과 홈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높은 산'과 같은 김연아를 넘어 보겠다는 각오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쇼트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김연아의 연기만 보면 쉽게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연아는 5일 쇼트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최고의 연기였다'라는 칭찬에 "저도 불같이 잘할 때가 있어야죠"라며 웃음을 보였다. 경기 직전 최종 리허설에서도 "매일 좋아지고 있다. 느낌이 좋다"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아의 목표는 우승을 넘어 여자 싱글 첫 200점 도전과 내친김에 자신이 지난 2007년 11월 그랑프리 시리즈 '컵 오브 러시아'에서 세웠던 프리스케이팅 역대 최고점(133.70점)을 경신하는 것이다.

프리스케이팅 역대 최고점만 세우도 전날 쇼트프로그램을 합쳐 가법계 200점대를 돌파할 수 있다. 특히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36명의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트리플-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했고, 점수 배점이 높은 트리플 러츠(기본점 6.0점)도 가산점을 무려 1.4점이나 받아 다른 선수들의 콤비네이션 점프에 육박하는 점수를 얻는 등 점프 감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또 자신의 약점이었던 트리플 루프(기본점 5.0점)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성공률을 끌어올려 놓은 만큼 고득점의 토대는 모두 마련해 놨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온 김연아가 '미리 보는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최후의 승자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말뉴스



## '골프 지존' 신지애 '미래에셋' 모자 쓴다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5년간 최대 75억원 공식 후원 계약

2009년 첫 대회인 호주 ANZ레이디스마스터스에서 빈 모자를 쓰고 출전한 '골프 지존' 신지애(21)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SBS오픈에서는 '미래에셋' 로고를 달고 출전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에서 신지애의 아버지 신재삼(49)씨와 후원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세계 최정상급인 신지애의 실력뿐 아니라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착한 심성과 겸손한 태도 등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잘 맞는다"며 "회사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신지애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더 좋아졌다"고 기뻐했다.

8일 ANZ레이디스마스터스를 마친 뒤 곧

바로 SBS오픈이 열리는 하와이로 날아갈 예정인 신지애는 인천국제공항 환승 과정에서 미래에셋 로고가 달린 모자와 옷을 건네받을 계획이다.

이로써 3년 동안 후원했던 하이마트와 지난달 결별했던 신지애는 썩았던 '무적(無籍)' 신세를 청산하고 LPGA 투어 무대 제패에 커다란 힘을 보태게 됐다. 계약조건은 1년에 10억원의 후원금과 최대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등 연간 15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인센티브는 LPGA투어 대회 우승 때 상금의 50%, 2~5위 입상 때 상금의 30%를 지급하고 신인왕이나 상금왕 등 타이틀을 따면 보너스를 지급하되 1년에 5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적어도 5년 동안 50억원, 최대 75억원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받는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모자와 가슴 등에 로

고를 다는 대신 어깨나 소매, 가방, 클럽 등에 다른 기업이 서브 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신지애의 후원금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에셋은 모자 정면, 모자 오른쪽 측면, 상의 왼쪽 가슴과 소매 등 4곳에 로고를 달고 모자 왼쪽 측면, 상의 오른쪽 가슴과 소매 등은 서브 스폰서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이마트와 결별하면서 그동안 써왔던 일본골프클럽 PRGR과 클럽 공급 계약도 해지했던 신지애는 로열클래식 등 다양한 클럽을 시험하면서 클럽 계약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주무대로 삼아 뛰면서도 상금 수입만 50억원에 육박했던 신지애는 올해부터 상금 규모가 큰 LPGA 투어에 진출하는데다 각종 기업 후원금을 보태면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 슈퍼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연말뉴스

## 생활 게시판

### 화촉

- ▲김상천(광주대 교수)·김명심씨 차남 형후(한외사)군 이한혁(건축업)·박미자씨 차녀 현주(서석초 교사)양=8일(일) 낮 12시10분 조선컨벤션 1층 춘추관
- ▲유형용(법무사)·정애자씨 차남 동훈(광주기독병원 비뇨기과) 이상욱(신일교통 대표)·김순임씨 장녀 수연(광주 남초등학교)양=14일(토) 낮 12시20분 메리엇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 ▲최해구·이영자씨 장남 현철(전남대 교수)군 김만재(하남중학교)·김인순씨 장녀 은주(영동대·광주여대 외래교수)양=14일(토) 오전 11시50분 한국교직원공

### 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실

- ▲이주현(전남매일 판매국장)·주영란씨 차남 재현(현대상선)군 심진섭·박윤순씨 장녀 효진양=15일(일) 오전 11시 2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3층(아리시홀)
- ▲이성기(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 사무처장)·강희숙씨 장남 동욱(남선정보)군 김순열·정미숙씨 차녀 해란양=15일(일) 낮 12시3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아시아나홀)
- ▲김희민(전 광주일보 시판부 차장)·한경자씨 장남 현승군 황병연·김금순씨 차녀 은미양=15일(일) 낮 12시30분 갤러리아 웨딩컨벤션 1층 다이아몬드홀

### 부음

- ▲양돈승(법무사)씨 별세 동학(변호

- 사)·재원·성원(조선대 의대 교수)·미현(서울자양중 교사)·진숙(동신여고 교사)씨 부친상 김현아(스위스약국 대표)씨 시부상 김길용(성신여대 교수)·선광진(목포한국병원 의사)씨 빙부상=발인 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 ▲정모순씨 별세 김송근(화가)·기연(중기업)·순희씨 모친상=발인 7일(토)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 ▲신덕임씨 별세 강경원(금호타이어)·월선·이순·경원·경순씨 부친상=발인 7일(토)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062-250-4403
- ▲김정덕씨 별세 황미숙씨 모친상 노광춘(여수상회)씨 빙모상=발인 8일(일)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대한항공 공식항공

#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3777-8000

## RADIO

100% 뉴스

11시 뉴스

12시 뉴스

13시 뉴스

14시 뉴스

15시 뉴스

16시 뉴스

17시 뉴스

18시 뉴스

19시 뉴스

20시 뉴스

21시 뉴스

22시 뉴스

23시 뉴스

00시 뉴스

기독교방송

신요호선 뉴스

CBS 뉴스

080-600-1031